



남원시가 시립농악단의 흥겨운 농악 한마당 상설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농악 한마당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2시 광한루원 원월장에서 열린다.

농악부터 피아노 연주까지

남원시, 내달부터 문화예술 공연 '다채'

10월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광한루원서 농악 한마당
 주요상설공연 · 광한루의 밤풍경 · 한옥자원 야간 공연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 피아니스트 연주회 등도 기획

남원시가 시립농악단의 흥겨운 농악 한마당 상설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농악 한마당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2시 광한루원 원월장에서 사물놀이, 앉은반설장구, 전통연희, 버나놀이 등을 공연하고, 광한루원에서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국

악의 도시 남원의 명성에 어울리는 국악공연인 ▲수요상설공연 전통소리칭 ▲광한루의 밤풍경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시르렁 실경! 톱질이야기를 공연한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서는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등을 비롯해 우수문화예술 기획공연을,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는 ▲한국

을 빛내는 목소리, The Best Voice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초청공연 ▲가족오페라 미술 피리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연극 환타 지음악인형극 안녕!도깨비 ▲피아니스트 박종혜 연주회가 기획되어 있다.

공연료는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유료 5,000원)을 제외한 모든 공연이 무료(광한루원 입장료 별도)이다.

김년수 남원시 문화예술과장은 "올해 국가예산을 확보하게되며 다양한 공연을 추진하게 되었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비를 투입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울한 마음 '어린왕자' 공연으로

전주시립예술단, 26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음악 낭독극 진행
 샌드 애니메이션 활용 시각효과, 시립교향악 · 극단 '콜라보'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에 빠진 시민들을 위해 음악 낭독극 공연을 펼친다. 전주시립예술단은 2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예술단 다목적실에서 시민들의 우울한 마음을 치유하고 침체된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음악 낭독극 '어린왕자'를 공연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어린왕자'는 샌드 애니메이션(모래그림)을 활용한 시각효과를 배경으로 시립교향악단과 시립극단, 시립합창단이 함께 아름다운 음악과 생동감 있는 연기를 펼치는 콜라보 공연으로 진행된다.

이 공연은 아이들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가족극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립예술단 관계자는 "음악 낭독극 '어린왕자'를 시작으로 시민들이 양질의 공연을 향유할 수 있게 상설공연과 정기공연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공연 진행 시 관객객간의 간격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공연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연일정 및 예약정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단운영사업소(063-281-6659)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립예술단은 2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예술단 다목적실에서 시민들의 우울한 마음을 치유하고 침체된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음악 낭독극 '어린왕자'를 공연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역사문화도시 익산 '시민이야기마당' 26일 개최

익산시가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와 참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2회에 걸쳐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문화 도시 시민 이야기 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만드는 역사문화도시 익산'이라는 주제로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도시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26일에는 조광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왜 문화도시인가' 기획강연을 시작으로 이차재 청주시 문화도시센터 팀장이 '법정 문화도시 지정 청주시' 사례발표와 함께 참가자들의 질의 응답 시간으로 이루어진

다. 이어 6월 2일에는 원도연 익산문화도시추진위원장의 '역사문화도시를 꿈꾸는 익산이야기'를 주제로 발제 후 익산은 어떤 문화도시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해 참가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 이야기 마당에 참석을 원할 경우 문화관광재단 또는 익산희망연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선착순 50명만 접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문화도시를 시민참여와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한 시민 중심형 사업이다. 이번 이야기마당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도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영림 기자

순창 관광지 방문사진 찍으면 특산품이

'순창찍GO! 선물받GO!' 내달부터 진행

순창군이 6월 한달간 관내 관광지를 방문한 사진을 찍으면 순창의 특산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순창 찍GO! 선물 받GO!'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50명에 한해 진행되는 것으로, 군이 요구하는 총 5가지 미션 중 세 가지 이상을 수행한 사진을 순창군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군은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특별한 미션을 부여하고 목표를 이룬 관광객에게는 순창의 특산품이 담긴 선물꾸러미('순창을 담다')를 전달해 관광의 재미를 취 관광객 유치는 물론, 특산품 홍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5가지 미션 중 필수미션은 2가지로 ▲강천산 병풍폭포 앞에서 인증샷 ▲순창 채계산 출렁

다리 인증샷이다. 선택미션은 ▲장군목유원지 인증샷 ▲항기유원지 인증샷 ▲1만원 이상 관내 이용 영수증 인증샷 등 3가지다.

미션을 수행한 관광객에게는 순창장류세트(된장100g, 고추장 100g, 간장 100ml) 및 순창 발효드립커피팩(7g×5개입)와 함께 한 장의 카드로 전라북도 관광지 자유이용시설을 무료로 여행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카드가 제공된다. 참여대상은 순창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으로, 순창 관내 거주자 및 순창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